

한국전쟁과 세계체제

이수훈(경남대 교수, 사회학)

1. 머리말

이 논문은 한국전쟁이 20세기 후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역동적 형성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며 어떻게 파급되었는가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왕의 한국전쟁 연구는 한국전쟁 성격과 관련하여 주로 전쟁 발발의 기원과 과정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 한국전쟁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그 기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두드러진 점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공고화하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귀결이나 파장에 대한 연구, 특히 한국전쟁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미친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점은 아쉽다.

한국전쟁은 발발의 배경이나 초래된 결과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

반도 내부적 수준의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동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체제와의 연결성을 무시하고서는 대저 온전한 접근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두 분단 세력이 충돌한 내전에 그치지 않고, 당시 국제질서상의 핵심 강대국들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개입한 국제적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기원 연구로 크게 명성을 떨친 브루스 커밍스는 그의 연구 서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8월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까지 기간 동안에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중대한 국내의 사건들을 한국전쟁의 씨앗으로 인식하기를 요청한 바 있지만,¹⁾ 3년간의 한국전쟁이 이후 한반도와 세계질서에 끼친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학계에서도 박명림 박사가 한국전쟁에 관해 탁월한 연구서를 내면서 한국전쟁과 유관한 국제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지만,²⁾ 아직 그 전쟁의 국제적 귀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양을 위주로 하는 북한 정권의 도발·남침과 서울을 위주로 하는 남한 정권의 대응은 곧 한반도 전역을 전장화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되었고, 사실상 미군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엔군의 적극적 개입은 한국전쟁을 국제적 전쟁으로 변모시켰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와 한민족에 극복하기 힘든 파장을 남기게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전쟁의 과정과 결과가 세계체제에 미친 파급 효과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전쟁 연구는 반드시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본 분석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기존의 지배적 연구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전쟁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한 신흥 핵심국 미국으로 하여금 1950년대와 1960년대 자국의 헤게모니를 한층 강화하여 새로운 세계질서, 즉 자본

1)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서울: 일월서각, 1981).

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서울: 나남, 1996).

주의 세계시장과 국가간 체제의 새로운 작동 원리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 끼친 영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주된 연구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2. 두 국면과 한국전쟁

20세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역사의 가장 역동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로 전후 재건기(1945~50)에서 대호황기(1950~1973)로의 국면적 전환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두 국면의 접점에 발발했던 한국전쟁은 비록 한반도라는 지구의 한 사소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그 충격과 파장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반에 걸쳐 나타났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전후 재건기는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혼란’과 ‘혼돈’의 시기였다. 이른바 ‘30년 전쟁’(양차 대전을 아우르는 용어)으로 인해 세계 질서는 해체의 징후를 강하게 보였다. 파괴적 전투로 인한 물질적 파손은 말할 것 없고, 더욱 심각하게는 연료, 수송, 식량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초래되었다.³⁾ 이 병목 현상이 제거되지 못하면 해당 국가들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종전 당시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 운운할 만큼 심각한 정황의 진정한 배경은 자본주의 체제가 하나의 사회체제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었다.

3) 필립 암스트롱·앤드류 글린·존 해리슨, 김수행 옮김,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서울: 동아출판사, 1991), 제2장.

즉, 패전국에서 자본가계급은 정당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고, 가공할 전쟁을 초래한 국가도 그 권위에 치명타를 입었다. 전승국에서마저 노동은 전에 없이 강화되어 계기만 있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만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세계 대전의 당연한 결과에 속하는 일이지만, 종래의 국가간 체제의 위계가 무너져 새로운 위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개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던 주변부 지역은 민족 해방의 열기로 가득 차 체제를 위협했다. 게다가 자본주의를 적대시하는 새로운 이념과 그 대표 세력인 소련 문제가 있었다.

미국은 20세기 후반 초입만 하더라도 그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할 만한 국제적 위상이나 제도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에 미국은 당시 지도적 위치에 있었기에 국제질서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의 공고한 합의에 기초하지 못했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다가 1947년 이후에는 스스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특히 1949년에는 투자 감소, 생산위축, 실업 증대, 수출 감소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후퇴를 겪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다한 국제주의에 대한 반대가 한층 높아져 ‘축소의 정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 같은 노선간 충돌은 제도정치의 위기로 귀결되었다.⁵⁾

게다가 미국은 자국에 몰려 있는 유동성을 해소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었다.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교역 질서가 붕괴되어 유럽 국가들은 자

4) G. Arrighi, "The Global Market",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5, No. 2(1999), p. 11.

5) Heajeong Lee, "The Making of American Hegemony from the Great Depression to the Korean War"(Ph. D. diss., Northwestern University, 1999).

신들의 식민지로부터 벌어들인 달러로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다. 결국 유럽은 유럽대로 위기적 정황에 처해 있었던 셈이고, 일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전쟁 붐’은 광범위하고도 큰 파장을 야기시켰다. 미국에만 국한해 보면 한국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1949~50년 경기 후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부흥 계획과 더불어 발생한 ‘한국전쟁 붐’을 타고 뜻하지 않은 횡재를 했다. 구식민지 국가들은 미국의 탈식민화 정책에 따라 정치적 독립을 획득했고, 미국 주도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주변부로 재편되었다. 이들에게도 한국전쟁은 원료나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동반시켜 이득을 안겼다. 소련의 팽창 충동은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 몰고 온 ‘전쟁 공포’ 덕택에 다시 힘을 받은 ‘봉쇄’ 정책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었으며, 여타 사회주의 정권들은 이념상 자본주의를 적대시했지만 자체적으로 분리된 세계체제를 구성하지는 못했고 단일한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부에 존속했다.⁶⁾

한국전쟁은 미국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질서-헤게모니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그리고 생산과 교역이 번성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구축함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해 준 국제적 사건이었다. 한국전쟁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 체제의 재편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는데 냉전구조의 공고화와 전 지구적 확산에 기여했다. 냉전구조의 형성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에 ‘사회적 기강’, 즉 자본가계급의 노동에 대한 통제 확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세계적으로 팽배했던 혼란의 기운을 잠재우고 사회변혁의 압박에 대처하는 자본과 국가의 통제력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1940년대 말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면

6) Chris Chase-Dunn, *Socialist States in the World-System*(Beverly Hills, CA : Sage, 1982).

전환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950년 중반 한국전쟁 발발부터 베트남 전쟁의 문서상 종결 시점이었던 1973년까지의 23년 기간에 자본주의 세계경제 역사상 가장 지속적인 경제 성장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여러 연구자들⁷⁾이 이 시기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부르기도 했고, 일부 정치 경제학자들은 ‘대호황기’⁸⁾라 명명했다. 월러스틴을 위시한 세계체제 분석가들은 이 시기를 미국 헤게모니 체제기라 부른다.

3. 미국 헤게모니 사업의 완결

헤게모니 사업이란 특정 헤게몬(hegemon)의 정치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와 구상, 리더십에 따른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국가간 체제의 작동원리 구축, 그리고 권력의 행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사업을 말한다. 16세기 서구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등장 이후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에 이어 20세기 후반 미국이 세계체제의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⁹⁾ 20세기 후반 미국이 펼친 헤게모니 사업이란 유럽과 일본의 경제 재건에 따른 두 지역의 통합에 의한 자유주의 세계경제 구축과 그에 조응할 수 있는 국가간 체제의 재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2차

7) E. Hobsbawm, *The Age of Extremes*(New York : Vintage, 1994) ; S. A. Marglin, and J. S. Schor(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Oxford : Clarendon, 1991).

8) 필립 암스트롱·앤드류 글린·존 해리슨, 김수행 옮김,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9) Immanuel Wallerstein, “The Three Instances of Hegemony in the History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hapter 3 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세계대전 후 미국의 헤게모니 사업이란 다자주의-자본,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합의-에 기반해 단일한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재건하고, 동시에 우호적인 세력균형을 기조로 하는 국가간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중심 체제(multicentric system)’였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전쟁의 결과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한 헤게모니 체제가 등장한 것은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취한 세계 군사적 입지 강화에 기인하는 바 큰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하였던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유는 전쟁 전에 미국이 착실히 이룩해 낸 산업 발전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에서 찾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는 전쟁 구조 내부의 요인들, 즉 군사력, 국민적 동원, 전술, 동맹 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중국에는 경제력 혹은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미국은 당시에 생산력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세계경제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미국은 1930년대에 이미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이 당시 서구 열강들 가운데 제일 높았다.¹⁰⁾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은 정기적으로 유럽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냈는데,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유럽 식민지에서 생산된 1차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이 무역의 균형이 유지되었다.

이에 비해 유럽 국가들도 공산품을 식민지의 원료 및 식료품과 교환하고 대규모 식민지 투자에서 얻은 이윤을 식민 모국에 송금함으로써 달러를 획득했지만 전쟁에 필요한 현금으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에 식민 투자에서 얻은 이윤만으로는 막대한 액수의 달러를 획득할 수 없었다. 후에 이런 미국의 흑자는 ‘달러격차(dollar gap)’ 문제로 이어져 전후

10) 荒川弘, 윤영자 옮김, 『국제관계와 세계경제질서』(서울 : 인간사랑, 1989).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창출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제공했다. 아이로 니컬하게도 자본주의 세계경제 재건의 최대 위협이 된 것은 바로 세계 생산과 무역에서 미국이 최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¹¹⁾ 유럽과 아시아가 파산하면 미국의 해외시장 접근이 차단되어 다자적 경제통합의 가능성이 파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들 나라 들을 수출 시장으로 보았으나, 일본과 서유럽은 재건에 필요한 미국 식 료품과 원자재, 그리고 기타 재화를 구매할 달러가 부족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서독을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 공장(regional factory)’으로 각각 재건하여 해당 지역의 주변부들과 재통합시킴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적 경제통합과 협력 체제를 확립하려 했다. 미국 전략가들은 유럽과 일본을 공업 생산국으로 회복시켜 그들의 구식민지 에 공산품을 공급하고 1차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끔 삼각 무역 형태를 재창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본과 서독은 우호적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버팀목이었으며, 이들을 공산품 공장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자본주 의 세계경제와 새로운 팽창을 위한 물질적 토대의 핵심 부분이었다.¹²⁾ 한국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군사 케인스주의를 이용해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공장이라고 부른 곳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배 분할 수 있게 해주었다.¹³⁾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미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 계질서를 창출하는 일련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헤게모니 체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작업은 물론 미국이 독자적으로 구상하고 실현시킨 것은 아니며 전승국들과의 협조 및 경쟁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11) 윌러스틴 외, 백승욱·김영아 옮김, 『이행의 시대』(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

12) 위의 책.

13)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New York : Basic Books, 1975), p. 110.

만 본질적으로 미국의 이해 관계와 이니셔티브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루어졌다. 미국 헤게모니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 금융, 통상, 군사동맹 차원의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다.

첫째, 국제정치적으로는 ‘국제연합(UN)’을 탄생시켜 일종의 세계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제연합은 그 동기와 실제적 기능에 있어 전후 세계 자본주의의 상부구조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은 국제연합의 본부를 자국의 제 1도시 뉴욕에 유치하여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 기구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했다. 국제연합은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국민 국가 단위를 초월하는 세계적 정부가 아니라 여전히 미국이라는 특정 헤게모니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패권적 힘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동의’를 만들어주는 조직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국제연합이 실질적 힘과 통제력을 크게 상실한 것은 바로 그것이 더 이상 미국주도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상부구조가 아닌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전후의 세계경제 체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IMF·GATT 체제이다. 즉, 국제 통화·환율 면에 있어서는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의 ‘연합국통화금융회의’에서 결정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 World Bank)에 대한 협정이고, 통상면에서는 전후설치가 예정되었다 유산된 ‘국제무역기구(ITO)’의 내용 일부를 이어받아 1948년에 발족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을 요약하여 ‘미국 주도하의 브레턴우즈 체제(약칭 BW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BW체제는 금본위제에 기반하고 미국 달러가 세계경제의 기축통화(key currency)로 되며 미국 통제하의 자유무역질서 체제가 근본을 이룬다.¹⁴⁾ 브레턴우즈 체제는 닉슨이 1971년 달러 기축통화제와 금본위제의 포기를 선언한 결과, 그리고 이어 발

14) 이수훈, 『세계체제론』(서울: 나남, 1993), 190~191쪽.

생한 1973년 오일 쇼크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될 때까지 자유무역질서를 견인한 주요 제도였다.

셋째, 국제정치와 군사적 편제는 크게 보아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냉전구조이며, 이는 동시에 동서 관계가 주요 축이었다. 냉전구조는 1947년 3월에 선언된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 계기가 마련되었고 미국이 마셜 플랜-‘유럽 부흥 프로그램’-에 의해 유럽에 재건 원조를 공여함과 동시에 국제정치 무대에 새로운 강자로 뛰어난 소련을 봉쇄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의 대유럽 수출 촉진책으로서, 또한 유럽에 필요한 구매력 제공 차원에서 1950년대 교역 질서에 중요한 기능을 했다. 이후에도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 각종 ‘냉전 달러’를 공여함으로써 냉전구조를 공고히 하였다. 동서 관계에 의한 냉전구조가 가장 분명한 모습을 띠고 형성된 곳은 역시 유럽이었다. 유럽은 미국 중심의 NATO와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 진영이라는 동서 두 쪽으로 분할되었다. 냉전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상론할 것이다.

미국은 전후 처리에 있어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을 감안한 나머지 가혹한 배상을 가하여 자본주의 세계질서 내부에 적대성을 심기 보다는 각 국가들에 부흥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였다. 미국 자본주의는 그만큼 탄력이 있었고, 재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세계적 이동을 보장하는 체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 주도의 자유화 조치는 미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미국 기업은 조직과 제도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

주변부 지역에 대해서도 유럽 열강들이 취하였던 폐쇄적인 식민지 정책을 해체하고 탈식민화의 노선을 채택했다. 미국은 구식민지 국가에 대해 독립을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대신 후자는 원료나 원자재에 대한 미국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타협 속에는 급진적 민족주의를 제거하는 정치적 지형도 포함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전체를 개방하고 미국의 시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거대한 생산력을 가진 미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미국 헤게모니 아래서 직접적 식민주의 체제는 크게 후퇴했다. 미국은 자유, 무차별, 다변적 국제경제 질서의 창출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전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에 있어 핵심은 유럽과 일본의 부흥이었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 두 지역 공히 자립적 자본주의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당시의 조건들로서는 불가능했다. 설혹 미국의 개입 없이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에 유럽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쟁 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 유럽의 수입에서 미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38년에 10%에서 1947년에는 27%로 증가했다.¹⁵⁾ 유럽의 모든 이용 가능한 달러가 미국의 식량·원료·원자재 구입에 지출되었다. 유럽의 자본가계급은 미국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없었고, 승전국이었던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은 유럽 사회의 건강과 활기를 회복하는 데 치중했고, 자본가의 효율적인 통제를 복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환이 마셜 플랜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럽의 문제가 미국의 경제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인데, 예컨대 마셜 플랜의 배경에도 미국 경제문제가 역할을 했다. 전후에 미국은 지출 증대와 저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다 유동성 자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전시 경제에서 평화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실업이나 생산위축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수출이 중요했다. 유럽이 살아야 미국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경제도 당시 주요 자

15) 필립 암스트롱·앤드류 글린·존 해리슨, 김수행 옮김,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118쪽.

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투적인 노동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1945, 46년 ‘파업 물결’은 미국도 ‘사회적 기강’이 취약하다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 마셜 플랜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조직된 노동자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¹⁶⁾

헤게모니 사업은 비록 국제주의적인 사업이긴 했지만 미국의 국내정치와 긴밀한 유기적 연관성하에 일어났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당시 미국 국가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나 승전 이후 미국이 견고자 한 국제주의 노선은 국내적으로 엄청난 정치투쟁을 수반했다. 지배 집단의 사회적 합의, 국가적 우선 순위의 재설정, 자원의 재배치, 외교정책의 방향 재조정, 국가 역할에 대한 재정의 등이 그런 정치투쟁에 해당된다.¹⁷⁾ 이 투쟁에서 헤게모니 사업은 미국의 국익을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에 정착시키는 사업이었다. 국제주의자들은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국제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런 국익을 국제적으로 투사하는 이중적 사업을 벌였던 것이다. 이는 미국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유럽과 아시아 중에서 어느 지역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포함하여 여러 쟁점들과 과제를 던지기도 했고, 미국 내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헤게모니 사업의 정치경제적 부담과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인식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헤게모니 사업을 둘러싼 정치투쟁이 격화되자 1950년대 초 미국 내 제도정치의 위기가 야기되었다. 이 위기는 거시적으로는 미국 헤게모니 사업의 위기라고 볼 수 있고, 좁게 보면 국제과 대 국내과 간의 유럽 문제에 관한 대립과 관련되어 있었다. 물론 한국전쟁은 극동 지역

16) 위의 책, 126쪽.

17) Heajeong Lee, "The Making of American Hegemony from the Great Depression to the Korean War", p. 419.

에서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의미도 없지 않았지만, 재무장 프로그램(rearmament program)의 가속화를 촉진시켰고 이를 통해 미국 헤게모니 사업의 위기를 해소해 주었다. 다시 말해 이 정치투쟁에서 승리한 결과 트루먼 정부의 재무장 프로그램이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도 미국 시스템 속에 이른바 자유세계를 통합시키고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¹⁸⁾ 한국전쟁이 트루먼 정부의 재무장 프로그램 촉진요인으로서, 또한 가속화 요인으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뒤에 보다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1950년 초에 국무장관 애치슨의 주도로 탄생한 핵심적 정책문서 NSC-68은 미국 제도정치의 위기와 보다 거시적인 미국 헤게모니 사업의 위기를 해소해 주는 정책 기제였다. 전년도인 1949년에만 하더라도 트루먼 대통령은 국방예산에 13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두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본격화되고 중공군까지 개입하게 된 1951년에 트루먼은 자신의 군부 지도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선을 600억 달러로 늘렸다.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1951~53 회계 연도 기간(3년)에 트루먼 정부는 예산 신청액의 95%에 해당하는 1,556억 달러의 군사예산을 확보했다.¹⁹⁾ 이 액수는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 시작된 미국 외교정책에 혁명적 계기를 마련해 준 예산이었다.

트루먼 정부의 재무장 프로그램의 결과 안보 우선, 안보 기구들의 독립과 번창, 군산복합체의 정착, 안보·냉전 이데올로기의 확산, 안보 정책들을 통해 경제를 관리하는 ‘경제의 군사화’가 성립되었다. 즉 안보 국가와 생산력의 강화 간 복합이 이루어졌던 셈이다. 1950년 9월에는 ‘방위생산법(the Defense Production Act)’이 서명된 결과 대통령에게 경제

18) *Ibid.*, p. 419.

19) *Ibid.*, p. 416.

통제의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안보 기구로 말하자면 중공군 개입 직 후인 1951년 12월 ‘방위동원청(Office of Defense Mobilization)’이 신설되 기도 했다. 예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1952년도 안보 예산(국방비, 외국 원조, 무기 개발비 등 포함)은 미국 GNP의 18%에 해당되었다.²⁰⁾ 여러 면에서 1951년 11월에 있었던 중공군 개입의 파장이 미국 국가 구조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

중공군 개입 이전의 국무성 재무장 프로그램은 ‘경제자문회의(th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의 제한적 방위 동원정책에 의해 구속을 받고 있었다. ‘경제자문회의’의 입장은 국내 경제 발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었지 경제의 군사화가 아니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은 한국 전쟁을 제한전에서 전면전 가능성으로 해석하도록 만들기에 족했다. 그래서 NSC-68의 권고를 보다 시급하게 진전시키게 만들었다. 예컨대, 1954년까지로 잡혔던 재무장 프로그램 목표가 1952년에 조기 달성되었다. 중공군 개입 이전과는 달리 국무성과 군부와의 동맹 관계에 의해 재무장이 진척되었다. 군대 병력의 증대와 국방예산 폭증이 일어났다. 동원경제를 운영했으므로 물가와 임금이 동결되었다. 중공군 개입은 결국 국 애치슨과 국무성의 의도대로 재무장으로 이어졌는데, 국제적으로는 NATO의 군사적 강화, 국내적으로는 생산 확장과 통제경제에 입각한 방위 동원체제가 구축되었다.

또한 중공군의 개입을 소련(스탈린)에 의한 개입 요청의 결과로 해석하고 소련이 세계적 공산진영 구축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유럽은 미국의 자원이 극동지역에 투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소련과 미국간의 관계 악화가 유럽에 미칠 파장-가령 전면전-에 대해 우려하여 NATO의 강화와 통합사령체제를 실

20) *Ibid.*, p. 439.

현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의 반대가 누그러뜨려졌다. 애치슨은 유럽의 통합을 의식, ‘자유세계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강조하면서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 애치슨의 입장은 동맹국들이 중립으로 흐르거나 최악의 경우 소련 진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자유세계의 군사력을 급속하게 증대하는 것이었다.²¹⁾ 같은 맥락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일차 과제는 NATO를 재무장하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독일에 대한 원조를 통한 독일의 통합이었다. 소련의 봉쇄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경제 구축이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두 과제로 드러났다. 이들 두 과제는 독일의 통합뿐만 아니라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인 일본의 통합도 불가피하게 했다.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만 봐도 독일과 일본의 재건 없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경제 구축은 절름발이로 끝날 가능성이 컸다.

일단 한국전쟁에 의한 세계경제 경기상승은 미국경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9·50년 경기침체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재고 비축량이 1950년 초에 증가하기 시작해, 그해 연말에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기업의 고정자본 투자도 회복되었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지출도 치솟기 시작했다는데, 주로 군수용 지출이었다. 1951년말 정부지출은 1950년 증반보다 GDP의 7.5%만큼 더 많이 흡수했다.²²⁾ 또한 세금 인상과 재정적자 규모 축소가 이어졌다. 군비지출에 의한 물자 흡수로 인해 생산이 당연히 늘어났다.

한국전쟁은 극적인 1차 상품 붐을 낳았다. 양모, 가죽, 주식, 면화, 그리고 기타 기초 상품들의 가격이 약 세 배 올랐다. 공산품에 대한 원료

21) *Ibid.*, p. 427.

22) 필립 암스트롱·앤드류 글린·존 해리슨, 김수행 옮김,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173쪽.

의 교역 조건은 1950년 상반기에서 1951년 상반기 사이에 30% 개선되었다. 원료 수입은 1950년 6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증대하기 시작했다. 1949년 상반기에서 1950년 상반기 사이에 미국·일본·OEEC의 공산품 생산은 8% 증가했고, 원료 수입은 20% 증가했다.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정상적인 재고 보충은 투기-미국의 전략 물자 비축 계약에 의해 고무된-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생산 호황과 원료 공급은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 1950년 상반기에서 1951년 상반기 사이에 공산품 생산은 17% 증가했고, 원료 수입은 4% 증가했다. 1951년 1/4분기 전략 물자 비축 계약은 1949년 수준의 10배에 달했다. 1951년에는 군비지출의 증대가 자본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생산 확대율 7.5%의 절반의 원인이 되었다.²³⁾

‘한국전쟁 붐’은 특히 유럽과 일본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해 주었다. 유럽에는 유럽제 군사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한 대금으로 매년 23억 달러가 역외 조달 및 그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으로 흘러들어 가게 해주었다.²⁴⁾ 한국전쟁을 계기로 막대하게 증가한 미국 군사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런 군사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럽에 달러를 공급했다. 게다가 앞서 말한 1차 상품 붐 때문에 유럽과 일본은 주변부와의 무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달러 무상 공여를 비(非)달러권 무역 원천의 개발에 접합시킨 결합 원조 같은 미국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일조했다.

정책문서 NSC-48/5는 아시아에 대해서도 유사한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는 우선 한국전쟁을 위한 생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일본은 1940년대 말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다지(Joseph Dodge)의 지나친 ‘안정화’ 노선에 의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영국이

23) 위의 책, 174쪽.

24) 윌러스틴 외, 백승욱·김영아 옮김, 『이행의 시대』, 31쪽.

1948년 9월 파운드화를 30% 이상 평가절하함으로써 연쇄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30여 국가들이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시행했고, 이는 달러화에 엔화를 360 대 1로 고정시켜 두었던 일본에 수출 시장 경쟁력 감소라는 불이익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 특히 1949년은 일본경제가 대전 이후 가장 가혹한 시련을 겪었고, 혁명 직전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²⁵⁾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개입은 이런 상황을 종결시켜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50년 7월부터 미국은 ‘특별구매 조달 프로그램’-화약, 트럭, 군복, 통신 기계 등등의 전쟁물자 특별구매-을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기계류, 금속, 화학, 무기 부문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다. 1952~53년 기간 동안 특별구매와 미군 주둔 지출액이 일본 총외화 획득액의 37%에 달했을 정도였다.²⁶⁾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동시에 일본의 비료 제품과 소비재를 대량 구매하여 동남아 국가들에 원조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일본 산업의 부흥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64년까지 72억 달러의 군사장비 조달 비용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다.²⁷⁾ 미국은 1950년부터 1970년까지 20년간 일본에 연평균 5억 달러씩 지출하였는데, 일본으로 보자면 도합 100억 달러에 이르는 횡재였다.²⁸⁾ 그 덕택에 일본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 요인이 재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미국에 의한 일본 자본주의 부흥 전략은 한국전쟁 이전에 수립되었고 또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만약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경

25)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p. 200.

26) *Ibid.*, p. 200.

27) William Borden, *The Pacific Alliance : United State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Japanese Trade Recovery*(Madison, WI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4), p. 155.

28) *Ibid.*, p. 220.

제 대국 일본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한국전쟁이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전후 일본 자본주의의 복구에 기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일본 내 냉전 기운을 조성하고 정치적 안정을 닦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대전 후 5년 반 동안 일본을 점령했던 맥아더 총사령관, 미 국무성 고위 관리들, 미 기업 대표자들, 은행가들은 자본주의의 복구를 위해 일본 내 좌파 청산에 주력했다. 자본가계급의 강화와 순조로운 자본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약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골적인 탄압과 더불어 노조와 좌파정당의 무력화를 위한 정책을 폈다.²⁹⁾ 미군정은 1947년 2월의 총파업 계획을 사전 봉쇄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교착 상태가 지속되다가 다지의 아홉 가지 안정화 계획에 따른 임금동결, 노동시간 연장, 대규모 해고, 숙청을 체계적으로 단행한 결과 노동통제체제가 확립되었다. 한국전쟁 바로 직전인 1949년만 하더라도 좌파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실시하여 대학과 사기업에서 좌파 인사들을 해고하고, 공산당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여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전국적 노조연맹인 ‘첸노렌(全勞聯)’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8월에 강제 해체되었다. 공산당이 지배하던 노조연맹인 ‘산베추(産別)’도 붕괴되었다. 이 같은 노동과 좌파에 대한 탄압 정책은 한국전쟁 기간 내내 유지되었다.³⁰⁾ 일본 좌파는 이 기간 중 결정타를 맞았으며, 지하 활동으로 잠복하거나 다수가 중국으로 피신해 갔다.

미국은 1951년에 일본과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고 다음해에 일본의 독립을 허용했지만, 한국전쟁이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와 주둔군을 계속 유지하고 일본의 재무장 프로

29) Jon Halliday, *A Political History of Japanese Capitalism*(New York : Pantheon Books, 1975), p. 188.

30) *Ibid.*, p. 196.

그램을 추진하는 빌미와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일본은 주권을 되돌려 받기 위해 워싱턴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일본 간에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안보 동맹의 골격 역시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굳어졌다.

4. 냉전구조의 공고화와 확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국가간 체제를 특징지었던 냉전구조는 사실상 종전 이전에 이미 탄생했고 상당 정도 정착되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미·소 진영이나 그 세력권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태평양 지역만 하더라도 태평양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미 미국의 깊은 관심이 표명되었다.³¹⁾ 한반도의 경우 1943년에 이미 미 국무성 영토분과위원회에서 북태평양의 안전 보장이 미국 국익이며, 이에 한국이 유관하다고 보고 한국에 관심을 표명했다. 미 국무성 계획관들은 소련의 한국 점령을 우려하면서, 소련의 한국 점령이 극동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전략적 정세를 조성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의 대한 정책 기조인 신탁통치가 불충분하고 부분적 혹은 완전한 군사적 점령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국무성과 군부 내에 지배적이 됨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1944년 3월 국무성은 미군의 한국 진주를 구상하게 된다. 이 구상은 전후 미국의 목적을

31)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161~162쪽.

위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군사 작전에도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함축성을 지닌다는 중요한 지적³²⁾을 상기할 만하다. 루스벨트의 국제주의 정책에 입각한 한반도 신탁통치가 팽개쳐지고 점령으로 결론이 난 이 구상의 결과는 한반도의 분할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에 대한 최초의 봉쇄³³⁾였고, 소련과 직접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명확한 영토 경계가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분단의 실제선인 38도선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8월 10일과 11일 사이 국무성과 군부와의 야간 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³⁴⁾ 한반도에서의 미·소 대립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38도선에 의한 한반도 분할은 한국,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로 분할하는 ‘3중의 분할’³⁵⁾을 의미했다. 이 3중의 분할이 향후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한국전쟁으로 귀결되었는데, 그 전쟁의 파괴성과 참혹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의미가 실제 세계적이었고, 그 파장 역시 세계체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제창된 미국의 단일세계 보편주의 노선이 트루먼의 두 진영간 냉전질서 노선으로 대체되는 데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했고, 1945년 2월에 있었던 얄타회담은 이런 두 진영의 탄생을 결정적으로 승인한³⁶⁾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얄타회담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영향력을 자국의 진영에 한정하는 데 동의했다. 냉전 구조가 공고화되고 심화, 확산의 길을 걷는 데는 한층 더 복잡다단한 국가간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했다.

미국은 실제 얄타회담의 동의를 넘어 자국의 영향권을 넓혀갔다. 이

32) 위의 책, 162쪽.

33) 위의 책, 181쪽.

34) 위의 책, 168쪽.

3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63쪽.

36) Barnet Richard, *The Alliance-America, Europe, Japan*(New York : Simon & Schuster, 1983), p. 96.

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미국은 전략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국이 점령한 지역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지역에 개입할 권한을 주장할 수 있었다. 둘째, 구제국주의-영국, 프랑스, 일본 등-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그들의 과거 식민지나 영향권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승계할 수 있었다. 셋째, 탈식민화에 따라 발생한 제3세계의 대규모 민족주의적 반란을 진화하고, 그들을 계속 중심-주변이라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계서제 속에 묶어둘 필요성의 대두였다. 이들 세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냉전구조의 공고화·심화·확산이 일어났다. 소련에 대한 봉쇄와 그에 수반된 진영간 적대, 중동과 동북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 주변부의 적절한 통제 등은 냉전구조의 주요 내용이자 특징으로서 예의 세 요인과 각각 결부되어 초래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점은 냉전구조가 주로 유럽과 관련된 지정학적 발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30년 전쟁’(양차 대전)은 급부상한 신흥 핵심국가들-특히 독일-의 헤게모니 쟁탈 도전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전후 세계질서의 구축은 우선 그런 헤게모니 도전 세력을 정치 군사적으로 불구화시키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독일을 동서독으로 분단시켰던 것이다. 물론 냉전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동북아시아의 일본도 주요 대상이 되었는데, 일본의 경우 평화 헌법의 제정을 통한 무장 해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 같은 조치 이후에는 앞서 논의한 바대로 다자주의 세계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서독과 일본의 경제 재건이 필요했고, 미국은 헤게모니 사업을 통해 서독과 일본을 부활시켰다.

종전 후 구제국주의 세력들의 공백을 메워야 할 사건은 1947년에 발발한 그리스 내전이였다. 영국은 이에 개입할 능력도 미약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입할 동기도 별로 없었다. 대신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

하면서 미국이 개입했고, 이를 계기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영국으로부터 승계했다. 그러나 ‘트루먼 독트린’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소련과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두 진영 간의 대립과 적대는 급속도로 심화되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유진영의 보호와 영향권 유지 혹은 확대, 그리고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소련은 그 나름대로 미국의 제3세계 개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 다양한 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중·서부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다. 특히 소련은 주변 국가들이 서방의 궤도 속으로 재통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욕구를 보임으로써 미국과 갈등관계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은 미국의 마셜 플랜 원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마셜 플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결국 공산국가를 수립함으로써³⁷⁾ 냉전구조를 진전시켰다.

유럽에서의 이 같은 미·소간 대립은 NATO의 건설과 그에 대한 대응이었던 바르샤바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냉전구조가 제도화되었다. NATO는 마셜 플랜의 산물로서 트루먼 재무장 프로그램의 일환이기도 했고, 그런 만큼 유럽의 부흥이라는 세계경제적 질서 구축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마셜 플랜의 주 타깃이 독일이었다면 트루먼 독트린은 영국의 부흥을 도와 미국적 세계체제 속에 통합시키는 목적을 가졌다. 결국 냉전구조는 전후 미국이 펼친 헤게모니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문제이며, 이 헤게모니 사업은 NATO 군사계획에 의한 유럽의 평화보장과 유럽의 부흥이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냉전은 미국 헤게모니하의 다자주의 세계시장의 구축—영국, 독일, 일본의 재건과 재통

37) 윌러스틴 외, 백승욱·김영아 옮김, 『이행의 시대』, 32쪽.

합-에 필요한 지정학적 기둥이자 주변부 저항 저지와 미국 시스템 통합의 논리였으며, 소련이 주변부의 영향력 확대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소련의 봉쇄와 자유세계의 결속이 주된 내용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40년대 말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기조는 미국의 유럽 제 문제 개입과 냉전구조 형성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봉쇄정책은 미국 내 국제파와 국내파 간 정치적 절충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1949년에 이르면 국내파들이 미국의 국제적 개입 확대에 대한 국내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게 되고, 이른바 ‘축소의 정치’³⁸⁾가 등장하게 된다. 1949년까지만 하더라도 ‘축소의 정치’가 외교정책의 기조로 잡혀 있었고, 미국의 봉쇄정책은 위기를 겪고 있었다. 봉쇄정책은 경기침체와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태 진전은 국제파에 의한 ‘선유럽’ 정책이 국내파 가운데 중국 로비파에 의해 비난받게 만들었고, 관심을 태평양으로도 돌릴 명분을 제공했다. 국내파는 NATO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유럽 내 상호 협력과 자력에 의한 해결을 원했다. 의회 내에서 정치적 투쟁이 격화되었음은 앞 절의 제도정치 위기 논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미국 내 정치 전개는 미국 헤게모니 사업 그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축소의 정치’와 봉쇄정책의 위기는 앞 절에서 논의한 바 있는 NSC-68 정책문건에 의해 극복되었는데, 이 문서가 채택된 배경에는 1948년과 1949년에 발생한 일련의 세계적 사건들이 결정적인 몫을 담당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소련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노골적인 접수로 인해 미국인들은 적잖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의회 체제가 비교적 잘 작동했던 체코슬로바키아에 공산 혁명이 일어

38) Heajeong Lee, "The Making of American Hegemony from the Great Depression to the Korean War".

난 것은 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쟁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어 1948년의 ‘베를린 봉쇄’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베를린 봉쇄는 1948년 6월 미국이 서독에서 통화개혁을 실행한다고 발표하여 시작되었고, 소련이 이에 대응하여 베를린으로의 재화 유입을 봉쇄함으로써 발발했다.

1949년에도 무시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영국 스티어링 회의의 평가절하에 따른 달러격차의 증대, 1949년 9월 소련의 원자탄 개발, 그리고 국민당 정부의 패망에 따른 중국공산당 정부의 수립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NSC-68을 주도한 딘 애치슨은 이런 세계적 사건들을 적극 활용하여 소련 봉쇄정책 반대파를 누를 수 있었다. NSC-68은 트루먼의 미국 외교정책 목표를 재설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기초했지만, 단순한 안보전략 문건에 그치지 않았다. 그 표면적 목표는 소련의 위협 차단과 국제사회 보호에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헤게모니 체제의 유지와 그 체제가 강화될 수 있는 세계적 환경 조성에 있었다. 그래서 조지 케넌(G. Kennan) 같은 사람은 봉쇄를 일종의 ‘속임수’라고 규정했고, 그는 여전히 유연한 봉쇄정책을 주장했다.³⁹⁾ 봉쇄는 소련의 정치적 배제를 의미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헤게모니 사업의 일부,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재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장에 의한 군사력 증강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애치슨의 논리였다. 애치슨은 소련의 위협을 부풀리고 강조함으로써 ‘축소의 정치’를 파괴하기 위해 NSC-68을 제시했던 반면, 케넌은 소련의 위협을 방어적으로 보았고 미국이 유럽에 개입하는 데도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애치슨과 대립했다.

다시 말해 NSC-68의 목표는 ‘자유세계’의 구축과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의 구축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핵심은

39) *Ibid.*, pp. 377~399.

소련의 봉쇄가 아니라 서유럽의 재통합이었으며 서유럽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수용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⁴⁰⁾ 봉쇄정책은 유럽의 중심부 경제들에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막자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자유주의 세계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주변부 지역을 탈식민화시켜 편입시키고 그에 저항하는 신생국을 규율한다는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중동, 한국, 베트남 등에 미국이 적극 개입한 점이 이를 입증해 준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은 봉쇄정책의 위기, 미국 내 상이한 정파간의 대립, 아시아와 유럽의 달려격차, 미국 내 유동성 위기 등 1940년대 말에 미국이 직면했던 다종 다기한 과제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 내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했다.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통해 소련과 중국을 위시한 공산진영에 대한 자유진영의 구축이 분명해졌다. 소련과 중공의 팽창 의도나 압력 역시 한국전쟁을 통해 봉쇄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뿌리를 내린 동북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냉전 구도가 더욱 공고화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은 일본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을 자국의 안보구조 속에 묶어둘 수 있었다. 한국전쟁은 또한 중국과 일본 간의 연결 고리를 차단할 수 있었다. 중동과 유럽에 이어 동북아·태평양 지역으로 냉전구조가 확산되어 이제 냉전구조는 명실상부하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기 시작했던 국가간 체제의 '재편'을 특징짓게 되었던 것이다.

40) *Ibid.*, p. 397.

5. 맺음말

이 논문은 한국전쟁이 자본주의 세계체제 역사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 발발하여 그 세계체제에 심대한 파장을 야기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전쟁을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 사건으로 다루고자 시도했으며, 그런 만큼 세계적 시각을 강조했다.

전쟁을 포함해 모든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행위 주체들간의 내적 갈등 요인들을 주된 이유로 해서 일어나며, 그 파급도 당사자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다. 당연히 한국전쟁도 그런 내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단순한 내전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이 개입된 국제적 전쟁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한반도를 뛰어넘는 훨씬 거대하고 광범위한 파급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전후 질서’가 자리잡는 시공간에서 세계 정치·경제적으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한국전쟁은 당시 신흥 핵심국 미국으로 하여금 1950년대와 1960년대 자국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새로운 세계질서, 즉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국가간 체제(interstate system)의 새로운 작동 원리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그간의 한국전쟁 연구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미친 파급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점은 이렇다고 하겠는데, 이 글이 그런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는 데 작은 기여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생산 시설의 파괴, 교통과 운송체계 등 사회자본의 와해, 식량 및 에너지난, 자본가계급의 체제관리 능력 저하,

노동의 공세, 국가 정당성의 상실 등등으로 해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혼란은 총체적이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런 혼란은 비단 패전국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승전국들도 양상은 달라도 중대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세계체제는 이 혼돈을 극복해야 했고, 세계경제는 복구되어야 했다.

당시 국가간 체제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결과 이와 같은 세계체제적 난관을 타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할 엄두를 낼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와 구상, 리더십에 따른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국가간 체제의 작동 원리 구축, 그리고 권력의 팽창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함에 있어, 그리고 생산과 교역이 번성하고, 자본·재화·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주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구축함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해 준 국제적 사건이었다.

새로운 질서의 구축에 있어 핵심은 유럽과 일본의 부흥이었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 두 지역 공히 자립적 자본주의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당시의 조건들로서는 불가능했다. 설혹 미국의 개입 없이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유럽의 자본가계급은 미국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없었다. 미국은 유럽 사회의 건강과 활기를 회복하는 데 치중했고, 자본가의 효율적인 통제를 복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환이 마셜 플랜이었다.

미국도 경제문제를 안고 있었다. 전후에 미국은 지출 증대와 저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다 유동성 자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전시 경제에서 평화시 경제로의 전환에서 실업이나 생산위축 문제를 막기 위

해서는 수출이 중요했다. 유럽은 심각한 ‘달러격차’ 문제를 안고 있었다. 유럽을 재건하여 구매력을 갖추게 하고, 그것이 미국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세계정책 기조 아래 움직여나갔으나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았다. 1950년 초 미국 내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헤게모니 사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정치투쟁이 벌어졌고 제도정치의 위기가 일어났다. 한국전쟁은 트루먼 정부의 재무장 프로그램 촉진요인으로서, 또한 가속화 요인으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를 통해 제도정치의 위기와 미국 헤게모니 사업의 위기가 해소되었다. NSC-68은 이를 지원해 준 정책 기제였다. 한국전쟁의 본격화와 중공군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국내 정치적 반대를 누르고 ‘경제의 군사화’ 노선을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군사 케인스주의를 이용해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공장이라고 부른 독일과 일본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배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원조와 군수조달 형식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달러가 독일과 일본에 유입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미국 주도 체제통합, 그리고 각각의 해당 지역 주변부들의 재통합을 통해 자유세계의 안정과 자유주의적 세계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 체제의 재편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는데, 제2차 대전 이후 어수선해진 국제관계를 정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냉전구조의 공고화와 전 지구적 확산에 기여했다. 냉전은 세 가지 의미를 띠었다. 첫째, 흔히 말하는 동서를 축으로 하는 지정학적 봉쇄와 적대의 의미가 있다. 둘째, 탈식민지화에 따라 발생한 제3세계의 대규모 민족주의적 반란을 진화하고 그들을 중심-주변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계서제에 묶어둔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에 ‘사회적 기강’, 즉 자본가계급의 노동에 대한 통제 확보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 자본가의 효율적인 통제

를 확보하는 일은 독일이나 일본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었고 미국도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냉전구조의 공고화가 미국이 구상한 자유주의 세계시장 구축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한국전쟁이 냉전구조의 공고화에 결정적이었다는 입론은 1940년대 말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기조가 미국의 유럽 제 문제 개입과 냉전구조 형성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을 얻는다. 1949년까지만 하더라도 ‘축소의 정치’가 외교 정책의 기조로 잡혀 있었고, 미국의 봉쇄정책은 위기를 겪고 있었다. 봉쇄정책은 경기침체와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축소의 정치와 봉쇄정책의 위기가 극복된 것은 물론 NSC-68 정책문건을 통해서였지만, 이 문서가 채택된 배경에는 1948년과 1949년에 발생한 일련의 세계적 사건들이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그리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은 봉쇄정책의 위기와 미국 내 상이한 정파간의 대립을 청산해 주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진영에 대한 자유진영의 구축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렇듯 한국전쟁은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발발한 한반도 전쟁이었지만 그 파장은 실로 세계체제적이었다. 한국전쟁은 ‘30년 전쟁’ 이후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체제를 구원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특히 패전국의 경우)은 자본가계급과 국가 공히 일종의 정당성 위기를 심하게 겪었는데, 한국전쟁을 계기로 극복할 수 있었다. 미국은 유럽과 일본의 부흥을 통해 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질서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고, 냉전 체제의 확산과 공고화를 통해 자국의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런 바탕 위에 세계체제는 다시 일대 호황기를 맞을 수 있었다. 한반도인들의 피를 수혈하여 세계 자본주의가 회생했을 뿐더러 유례 없는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

지 말아야겠다.

참고 문헌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서울 : 나남, 1996).
-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서울 : 일월서각, 1981).
- 신광영,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서울 : 문학과학지성사, 1999).
- _____, “5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 전쟁 워크숍 발제문, 2000).
- 월러스턴 외, 백승욱·김영아 옮김, 『이행의 시대』(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
- 이수훈, 『세계체제론』(서울 : 나남, 1993).
- _____, “중국의 세계시장 재편입”, 『비교사회』, 제1호(1997).
- _____, “세계체제 상층 권력구도 재편 연구”, 세종연구소 편, 『아시아와 세계화』(서울 : 세종연구소, 1998).
- 필립 암스트롱·앤드류 글린·존 해리슨, 김수행 옮김,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서울 : 동이출판사, 1991).
- 荒川弘, 윤영자 옮김, 『국제관계와 세계경제질서』(서울 : 인간사랑, 1989).
- Arrighi, G., *The Long Twentieth Century*(London : Verso, 1994).
- _____, “The Global Market”,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5, No. 2(1999).
- Barnet, Richard, *The Alliance-America, Europe, Japan*(New York : Simon &

- Schuster, 1983).
- Borden, William, *The Pacific Alliance : United State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Japanese Trade Recovery*(Madison, WI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4).
- Chase-Dunn, Chris, *Socialist States in the World-System*(Beverly Hills, CA : Sage, 1982).
- Gilpin, Robert,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New York : Basic Books, 1975).
-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Halliday, Jon, *A Political History of Japanese Capitalism*(New York : Pantheon Books, 1975).
- Hobsbawm, E., *The Age of Extremes*(New York : Vintage, 1994).
- Ikenberry, John, “Rethinking the Origins of the American Hegemon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4, No. 3(1989).
- Lee, Heajeong, “The Making of American Hegemony from the Great Depression to the Korean War”(Ph. D. diss., Northwestern University, 1999).
- Marglin, S. A. and J. S. Schor(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Oxford : Clarendon, 1991).
- McNeil, William, *The Pursuit of Power*(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Sklair, Leslie, “Competing Conceptions of Globalizati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5, No. 2(1999).
-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System 1*(New York : Academic Press. 1974).

_____, “Semiperipheral Countries and the Contemporary World Crisis”,
Theory and Society, No. 3(1976).

_____, “The Three Instances of Hegemony in the History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hapter 3 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Abstract)

The Korean War and the World-System Perspective

Su-Hoon Lee(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the World-System Perspective.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Korean War tends to focus on the origins and processes of the war, as well as highlighting the interplay of geopolitical interests of the major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late 1940s. Unfortunately, many scholars have underscored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Korean War, paying little attention to the impact of the war on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World War II.

Prior to the Korean War, there was a crisis in the capitalist system. Economically, the capitalist world-system was in a state of disorder--major capitalist economies experienced enormous difficulties after the devastation of the war. Both the capitalist class and the state underwent a legitimacy crisis. Politically, the interstate order was in chaos, as the explosion of national

liberation from the peripheral states imposed serious threats to the system as a whole. The United States alone could not reconstitute the world order. In 1949, domestic pressures called for les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affairs.

The Korean War enabled the United States to take a renewed initiative in completing its hegemonic conquest through a revival of the capitalist world system based on the guidelines of restoration in Germany and Japan. This, in turn, meant instituting a Cold War order by which to adequately quell the nationalist liberation movement from the periphery and the revolutionary aspirations of the world leftist forces, and finally to succeed in the distribution of the world liquidity by which the multilateral world trade order could be reinstated.

Key Words : Korean War, World-System, United States, hegemony, Cold War